

요약

소비자태도지수 3분기 연속 상승 서울시민 체감경기 '완만한 회복세'

소비자체감경기지수는 서울지역 체감경기 진단에 유용한 지표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경기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은 2008년 3/4분기부터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or Consumer Survey Index)를 분기별로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다.

소비자체감경기지수는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 중 하나이다. 경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생산지수, 경제성장률 등 다른 통계에 비해 신속하게 접할 수 있어 서울지역의 체감경기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서울 1,000가구 표본으로 설정...연령·구별 비례에 맞춰 할당

소비자 체감경기 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서울시 일반가구로 한정하였으며, 미혼가구는 제외하였다.

목표 표본은 서울 소재 1,000가구로 가구 분포는 가구주의 연령·구별 비례에 맞게 표본비율을 할당하였다.

권역별 결과 산출을 위해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구 표본을 할당하였으며, 권역별 해당 자치구는 서울연구원에서 산출하고 있는 여타 조사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권역 구분을 사용하였다.

응답대상자는 가구주나 가구주 부인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분포

(단위: 가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서울 전체	55	210	295	282	167	1,009
도심권	6	9	13	13	9	50
서북권	6	25	33	30	20	114
서남권	16	66	87	86	50	305
동남권	10	43	66	63	34	216
동북권	17	67	96	90	54	324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 체감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 조사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매 분기 실시되며 크게 가계재정과 경제 인식, 소비지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이 중 생활형편지수, 경기판단지수, 구입태도 지수를 종합하여 소비자태도지수로 발표한다.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는 가구부문을 항목별로 5점 서열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전체응답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소비자체감경기지수(CS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CSI_k = \left(\frac{0 \sum_{ij \in n_1} w_{ij} n_{ij1} + 50 \sum_{ij \in n_2} w_{ij} n_{ij2} + 100 \sum_{ij \in n_3} w_{ij} n_{ij3} + 150 \sum_{ij \in n_4} w_{ij} n_{ij4} + 200 \sum_{ij \in n_5} w_{ij} n_{ij5}}{\sum_{ij} w_{ij}} \right)$$

CSI의 범위는 $0 \leq CSI \leq 200$ 이다. CSI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 체감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 분기보다 악화, 100이면 전 분기와 보합수준을 의미한다.

표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각 분석 단위는 5개 권역별, 가구주 연령별, 소득 수준별, 학력별, 응답자 성별, 가구주 직업별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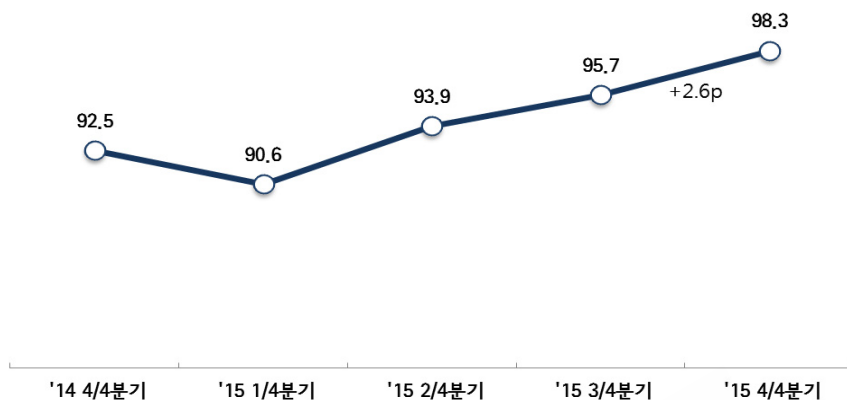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지역 소비자체감경기지수 체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015년 4분기 90.8로 1년간 11.1P 뚝박질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5년 4/4분기에 98.3으로 전년 동기(92.5) 대비 5.8p 상승하였고, 4분기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부적으로 2015년 4/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0.8,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8.9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p, 9.7p 상승하여 체감경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상반기 기준치(100)에 가까운 값으로 기대를 보이던 「주택구입태도지수」는 4/4분기 80.5로 전년 동기(96.1) 대비 15.6p 하락하였다.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p 하락한 90.9를 기록하여 최근 주택과 내구재 구입에 대한 심리가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2015년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표 2]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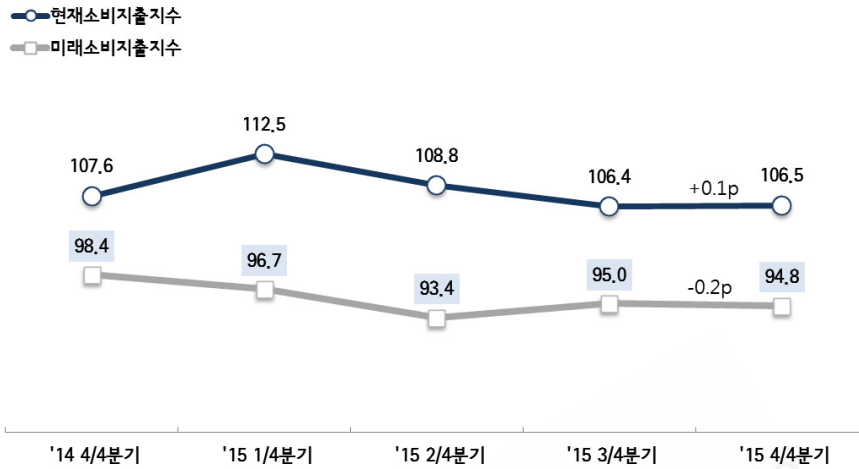
	소비자 태도 지수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4년 4/4분기	92.5	79.7	91.9	59.2	81.7	94.9	96.1
2015년 1/4분기	90.6	81.0	94.9	55.6	80.0	88.0	98.2
2015년 2/4분기	93.9	84.3	98.1	63.1	81.5	89.1	96.2
2015년 3/4분기	95.7	86.2	100.4	65.2	83.1	89.3	91.0
2015년 4/4분기	98.3	90.8	101.4	68.9	82.7	90.9	80.5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년 동안 기준치 이상... 지출수준은 감소세

1년 전에 비해 현재 지출 증가 여부를 묻는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015년 내내 기준치(100) 이상으로 1년 전에 비해 지출은 늘었으나 지출 수준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순자산지수」는 2015년 4/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3p 더 하락한 92.4를 기록하였다.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15년 1/4분기 73.1의 저점 이후 소폭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0.6p 상승한 75.9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



[그림 3] 2015년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표 3]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4년 4/4분기	107.6	98.4	93.7	75.3	128.0
2015년 1/4분기	112.5	96.7	94.2	73.1	130.9
2015년 2/4분기	108.8	93.4	96.3	73.3	135.3
2015년 3/4분기	106.4	95.0	92.4	79.0	131.6
2015년 4/4분기	106.5	94.8	92.4	75.9	130.6